

## 삼성화재해상보험, 금융권 공정거래문화 정착 선도

- 금융권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



삼성화재해상보험(사장 이수창)이 금융권 최초로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9월 26일 한국 공정거래협회 관계자와 이수창 사장,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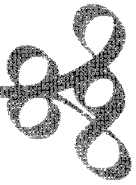
이날 선포식에서 이 사장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체제가 가속화되어 가는 세계 경제의 환경변화속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이제 우리 회사의 기업경영에도 접목되지 않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절박한 상황이므로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준법감시인인 김광석 상무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임명하고, 공정거래 윤리강령, 행동준칙, 처리규정, 체크리스트, 내부제보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발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안)’을 기초로 제정된 것이다.

삼성화재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부서 및 직책에 있는 임직원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화재가 금융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금융업계, 특히 생·손보업계에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KT, 공기업 최초로 공정경쟁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국내 최대 IT기업인 KT(한국통신, 사장 이상철)가 공기업 최초로 국내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성남시 분당 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병일 부위원장, 통신위원회 윤승영 위원장, 한국공정거래협회 이양순 회장 등 공정거래정책관계자와 전국 전화국장, 자회사 사장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쟁 자율준수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이상철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을 KT가 업계 최초로 채택하여 통신시장에서의 선의의 경쟁질서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실천의지를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공정경쟁을 솔선수범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고객확보를 위한 그 동안의 소모전 양상을 지양하고 품질향상, 고객을 앞서 생각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 실천의지가 담긴 “FAIR(First Attitude Implementation Reputation)”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이 실행전략에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 작성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모니터링 및 경쟁법 위반 임직원 제재방안 등 실천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사업성과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김병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도입·시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자율준수규범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